

연중 제29주일

기도서 460 면

제 1 독서 : 이 사 53, 10-11

제 2 독서 : 히 브 4, 14-16

복 음 : 마르 10, 35-45 (42-45)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서시노총동560~6
 천주교구청
 ☎ 5098 ☎ 3201

□ 강론



길이 남을 일

유종환 신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혼돈의 시대, 물질만능의 시대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이러한 인생의 근본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세계는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갈라져 애국애족한다는 미명아래 권모술수와 모략 등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더러운 물결이 우리 사회를, 세계를 잠 먹고 있다.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삶, 국가와 세계를 위하는 폭넓은 삶이어야 할 인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협소한 인생살이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못된 물결이 우리 천주교회, 공번되고 거룩하고, 하나인 성교회에 흘러 들어와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 교구-내 본당-내 구역-내 집, 이렇게 좁히자 보면 '나' 하나만이 외롭게 남아있게 된다.

미국의 유명한 카이베기는 무일푼에서 출발하여, 천천만고 끝에 미국에서 제일가는 재벌가가 되었다. 그가 땀 흘려 번 돈은 수년 속에 이룩한 공든 탑이고, 삶의 응어리였다. 이렇게 귀하고 값진 돈을 세계 방방곳곳에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데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업체를 진실한 후계자들을 양성시켜서 국가와 세계를 위해 참신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업인들에게 남김없이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가난한 자로 되돌아갔다.

일가친척들에게만 재산이나 사업을 넘겨주는 세인, 호화스러운 물건이나 귀금속만을 쌓아 놓으려는 세인, 이들이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일가친척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었다손 치더라도 죽은 뒤에는 무엇이 남겨져 있겠는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나 막노동 을 하며 사는 자나 죽은 뒤에는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되지 않겠는가. 죽고나면 사라질 세상 것에만 골똘 하지 맙시다. 재벌가 카이베기는 비록 빈손으로 무덤에 묻혔지만 길이 남을 선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지금도 길이 빛나고 있지 않은가. 줌도, 녹도 슬지 않는 하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지혜를 배움시다.

(수류 본당 주임신부)



제1회 교구 신앙대회

바둑은 상대방보다 집이 넓어야 이기는 놀이이다. 그래서 허허벌판에 말뚝을 꽂아 집을 짓는다. 그런가 하면 남의 집에 비집고 들어가 살거나, 또는 상대방을 퇴짜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싸움에는 큰 원칙이 하나 있다. 내가 먼저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이길 수 있다 (我生然後殺他)는 원칙이다. 그래서 남을 공격하면서도 자기 보완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검수를 겨루는 운동시합도 마찬가지다. 야구에서도, 아무리 타력이 좋아도 수비가 허술하면 지고마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평신도들의 위치가 크게 부각되었고, 조금은 무언가를 해본다고 움직이기도 했다. 잘한 일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신도들이 나름대로의 위치와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하지만 너무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변모를 위해서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

교구 평협은 한국 선교 200주년을 앞두고 세신의 몸부림을 시작하기로 했다. 제1회 교구 신앙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평신도 사도적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위부대의 모임이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사도다운 무장을 위한 밑도없는 교육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사도적 세신을 다짐하는 봉헌 미사와, 미사 후에 나누는 한 잔의 막걸리는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다. 관심도 갖고 박수도 보내자. 그리고 빠짐없이 참여하자. 그리하여 알차고 멋 있는 모임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자.

겨우는 계절, 우리 모두 영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수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좋은 계절인지라 산과 들도 찾아야 하겠지만, 밭에 묻힌 보물과 진주를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칠 것인가! (마태오 13, 44-1)

숲 정 이 산책



튼튼한 집이 됐군요!

□ 전교의 말

복음 선포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

1975년 12월 8일 성모 무염시태 축일에 나온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복음선교」(Evangelii Nuntiandi)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그 말은 원래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복음선포는 교회가 스무 세기를 살아오면서 수행해 온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권고하십니다. 첫째는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이요, 둘째는 열심치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며, 셋째는 갈라진 형제들인 개신교 신자들이요, 넷째는 그리스도교 아닌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교황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활동은 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 전부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인구를 3천 8백만으로 볼 때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은 통틀어 6백만 정도이고 그것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선 3천 2백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무수한 영혼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초대받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복음선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복잡한 것이기도 하다. “복음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이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죽음 및 부활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고 있으며 그리스도께 귀의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복음화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S. 클락)

위의 글은 본당 공동체를 위한 선교 방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책에는 본당 선교를 위한 40가지의 실천 방안 및 기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당 선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유익한 방안들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숲정이 원고 모집

전교의 말을 맞이하여 전교의 체면을 소재로 한 글을 모집합니다. 200자 원고지 6매로 10월 안으로 숲정이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을 관광

안내 상담

전 일 관광

전화 66666~8

제주도·설악산·한려수도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에게는 혼매반지를 기념으로 기증함

보석장

군산경찰서 전복은행 앞

전화 6603

한철재(비오)

□ 전교의 현상

진리를 찾는 발걸음

예화 1: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저 무심히 교회나 성당 앞을 지나쳐버린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이 소년은 그런 감수성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 마치 우리 선조들이 복경에서 얻어 온 책을 스스로 연구하여 진리의 길을 찾았던 것과 같음을 다시 보는 듯 하였다.

고1로서는 좀처럼 손에 잡지 않을 듯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허근 지음, 가출)이라는 책을 유심히 보는 것을 보고 말을 건네었던 것이 이 소년을 알게 된 동기이다. “전에 시골에 있을 때 개신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전주에 이사는 후 주일을 그냥 지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막연히 길을 건다가 덕진성당을 발견하고 찾아들어갔죠” 지금은 안토니오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버님이 경찰직에 계셔서 가톨릭에 대해 꽤 비판적이시기 때문에 처음엔 성경책이랑 기도서 등을 모두 친 구질에 맡기고 몰래 성당에 다녔어요” 학업에 몰리는 바쁜 일과 중에 또 하루에 꼭 한번은 진실한 맘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금 이 소년의 마음 속엔 사제가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이상이 빛나고 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은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이 소년의 마음속에 불러 일으킨 주님의 현존은 꽤 나를 감동하게 하였다.

예화 2: “수녀님 가톨릭은 어떤 종교인가요?, 구원관은?, 가톨릭에서는 성모님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 같은데요”라고 막혔던 수로가 터진듯이 속속들이 캐물어나를 진탐나게 했던 청년의 궁금증을 다스리나가 풀어주고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에는 개신교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죠. 형수께서 가톨릭 신자이신데요, 한 집안에서 종교가 다른 것도 안좋은 것 같아 생각중이죠”, “우선 이 책들(「무엇하는 사람들인가?」 「주요 기도문 풀이」, 「구도의 길」)을 읽고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잘 가꾸어진 좋은 땅인 그에게 이 말씀의 씨앗들은 잘 받아들여졌고, 기뻐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겸차 교리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교리반과 신부님께 소개하게 되었고, 좀더 깊은 내용을 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버지 나를 당신께 맡기나이다」를 권해 주었다. “수녀님 이책(아버지...) 참 좋았어요. 늘 성령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표현을 했는지, 이제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진리를 찾는 발걸음이 서원에 닿을 때 그들이 진리의 단맛에 즐겨워할 때 인간은 진리의 빵으로만 진정 행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형제들에게 소개할 매스컴의 매체들을 통해 그분이 더욱 널리 알려지도록 성체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 드린다. (성바로 서원)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킹검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위크엔드 간이북



런던포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피노키오 아동복



첼린저 주니어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4451 주인 유 음리안나



□ 6지구 순교복자 현양대회 및 체육대회

6지구 5개 본당(무주·장계·장수·진안·한들)은 지난 10월 9일(토)에 무주 천주교회에서 제3회 6지구 순교복자 현양대회 및 체육대회를 박 미카엘 주교님을 모시고 신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다.

제1부는 무주 천주교회에서 주교님 집전으로 순교자 현양미사가 1시간에 걸쳐 거행되었다. 주교님께서서는 미사 강론을 통해 6지구 신자들과 처음으로 만남을 진심으로 기뻐하신다면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현 사회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신앙을 증거하자고 강조하셨다.

제2부는 주교님 임석하에 무주국교 교정에서 5개 본당 입장식에 이어 주교님의 시구식이 있는 다음 5개 종목(배구·뽀티볼·척사·줄다리기·릴레이)의 결전이 시작되어 저녁 6시 30분에 폐회식이 있었다. 우승은 장계, 준우승은 한들이 차지하여 우승기는 장계 성당으로 돌아갔다.

행사중 신자들의 뜨거운 주교님 영접, 비록 어려운 농촌 본당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지만 서로 주님안에서 형제애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밝은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흐뭇한 하루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무주 본당 모든 신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6지구 각 본당에 주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 교구청에 교육국·홍보국 신설

교구는 지난 9월 24일자로 사제들의 인사이동과 함께 총대리 신부님 산하에 사목국, 관리국, 교육국, 홍보국을 두었다. 그동안 사목국에 소속되어 있던 교육과 홍보분야의 업무가 각기 고유 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사목국은 사목국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진력하게 되었다. 신설된 교육국은 교구 내의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성인 교육의 지도 연구와 모든 차원이 체미나를 주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신앙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홍보국은 윤정이, 어린양 후보, 시청각 교재의 관리 대여, 인쇄실, 대사회적 홍보활동으로 교회를 널리 알리고 매체를 통한 전교에 힘쓰게 될 것이다.

신설된 국들의 사무실이 센타에 있어 센타 전화를 사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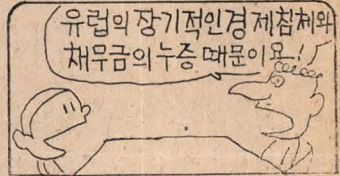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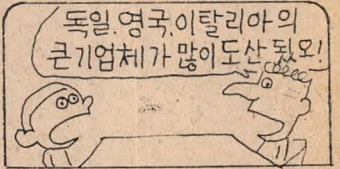
전화번호는 ⑤ 0042번이다.

□ 82년 제6차 레지오 연수회 개최

지난 10월 10일 센타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제6차 연수회를 240명의 많은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꾸리아 단장의 연구 발표를 중심으로 김 영일 신부님의 살아있는 강의와 김 치영 선생님의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김 정순 선생님의 성가 연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 정일 주교님의 미사 집전과 특별강론으로 “하느님께 충성하고 만민에게 은유하라”는 당부 말씀이 제쳤다. ※ 이날 100명을 예상하였는데 24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꼬미시움에서는 10월 9일 춘천에서 “그리스도를 모든이에게”를 주제로 개최한 제3차 민족 복음화 대회에 직속 브레시디움 단장 전원이 왕복 16시간의 차를 타고 다녀온 바 있다. 9월 26일 전동은 10개 브레시디움으로 ‘성마리아 꾸리아’를 창립(초대 단장 이 영문(안드레아)). 8월 22일 대야에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 꾸리아를 창립(초대 단장 김 창수(바오로)). 앞으로 11월 7일 신태인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후’ 꾸리아 창립 예정. 이로써 교구내에 30개의 꾸리아가 있게 된다.

요심이 (480)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밝고
눈을 편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타

교우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 수준의 안경을 제공함

구 역전 오거리

전화 ⑤ 3 0 3 2

윤(베드로) 종선

알 림

이 성원(방지거)씨의 장례식에 협조하여 주심을
형제 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82. 10. 8.

이 영 남(마르코)

독일제 치질약
에이널 좌약 입하
사마귀 제거약
베루말 재입하
시 민 약 국

4-0009-4-3338

약사 김 병 의(마렐로)

금·은·보석·시계는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열

(대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주단·포복(훈수·희갑숫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떡코)카펫지도매상

서울 주 단

전화 ⑤ 0 4 5 3

전주 중앙성당 저문 열

김 안토니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제 1회 교구 신앙대회(평협 주최)…10월 3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내용…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연수(제1부), 사도직 세신을 다짐하는 미사(제2부), 우정의 잔치(제3부)
2. 해성중·고등학교 견정: 20일
3. 5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모임: 일시-17일 오후 2시, 장소-남원 천주교회
4. 전주지구 M·E 소개의 밤: 30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센타 회의실
5. 전주 시내 중·고등학교 생도 지도자 모임…10월 26일(화)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타 3층 평협 사무실
6. 4지구 중·고 성가 경연대회: 일시-11월 14일 오후 2시
7. 전화번호 변경: 교육국·홍보국 5-0042
8. 축! 영명일: 19일-십자가의 성바로 김 준호 신부님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희	현호협
수석 보좌	한기박	인호협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황인구

- ① 성경읽기: 에베소서 1~4장
 1. 꾸리아: 오후 2시 강당
 2. 성모회: 공식미사 후 강당
 3. 병자방문: 19일(화)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4. 견정성사: 신청 안하신 분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교리-26일~30일까지 시간-오후 7시 30분~8시 30분
 5. 새성당 신축헌금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양옥·이공순·정연순(각 10만원), 김영철·이성녀·정정모(각 5만원), 찬송하을 정녀 처녀쁘레시디움 미사보조 판매 이익금 106,110원, 총누계-90,513,000원
- 지난주 봉헌금: 622,327원 교무금: 688,5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⑨567
사도 회장	김수겸

1. 할머니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2. 가정방문: 20일(수) 13반 반장님 수고하시겠습니다
 3. 성서연구반 가을소풍: 22일(금) 장소-내장산
 4. 레지오 마리아 육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5. 차주전례: 독서-①합본권 ②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233,911원 교무금: 192,0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⑥7032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전교주일: 24일(다음주), 전교회에 가입합니다
년회비-일반500원~2,000원, 어린이 100원씩
 3. 제단체 회장 모임: 22일(금) 오후 8시
 4. 금주의 성경읽기: 제2경전에, 집회서 전체
 5.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6.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 까지
- 지난주 봉헌금: 325,165원 교무금: 240,0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③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꼬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글라라 협회회: 다음주
 4. 예비신자 매월 모임: 수요일반-저녁 8시, 주일 아침반-공식미사 후, 주일 저녁반-저녁미사 후, 중·고생반-토요일 오후 3시 30분
 5. 미사시간 변경: 평일 저녁미사 오후 6시 30분
 6. 젊은이 성가대원 모집
 7. 본당 주일학교 체육대회: 협조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8. 추계 가정방문 일정: (오전 10시~오후 5시)
19일-서완산동, 20일~22일-동완산동, 26일~29일-하교동, 11월 9일-중앙·다가동, 10일-경원동, 11일~12일-남노송동, 16일~19일-풍남동, 26일~29일-전동·서교동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김동연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이영태 ②이영희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정동민 ②장수철
- 지난주 봉헌금: 532,98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희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먼저가신 전영들을 기억하고 미사 봉헌합니다
 2. 성모회 월례회: 할머니들 꼭 참석하세요
 3. 반석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젊은분 27세 이상인 남자
 4. 주일학교 가을소풍: 24일, 구이~수왕사 중간
 5. 본당 신자들은 모두 단체 가입 바람
공동체를 이룩하여 본당 발전에 한몫을...
 6. 애사 협조에 감사합니다: 애령회 회사금
정마리아(2만원), 이영남(2만원)
 7. 이말은 전교의 말입니다:
1세대 1인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8. 각 부서 임원을 10명씩 선정 제출 바람
- 지난주 봉헌금: 523,490원

(복자)

전화 ⑤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전교주일: 24일(다음주일) 특별헌금
전교회비는 10월중 납부합니다
 2. 가정방문: 10월 19일(화)-다가동4가 1·2반, 21(목)-다가동4가 3반·다가동3가 22일(금)-다가1·2가·중앙동1반, 26일(화)-중앙동2반·고사동1반, 28일(목)-고사동2·3반, 29일(금)-완산동
시간: 오전 9시~12시, 반회장님들 협조 바랍니다
 3. 금주전례: 해설-안경배, 독서-①김성원 ②장기연
차주전례: 해설-김제식, 독서-①정동민 ②정진협
- 지난주 봉헌금: 373,985원

(파티마)

신부 ⑥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④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재경분과 위원회: 오늘 저녁미사 후
분과위원장-김용부, 차장-함용준, 송월주, 김홍두
하준주, 성귀민, 유소영, 강덕자
 2. 다음주일은 전교주일
① 어린이미사 봉헌금은 어린이 전교회비로 로마에 보냄 ② 봉헌금은 불우한 전교회방에 보냅니다 ③ 파우아 유기리아에 선물 한국신부 4분 기억합니다
 3. 10월은 로사리오의 달·전교의 달: 모든 신자들이
연직에 참여해서 몇명이나 전교했는지 반성합니다
 4. 중·고생 파티마의 밤: 여러분의 성원에 무사히 마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5320원 교무금: 139,000원